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깨어있으라는 뜻에서 범종 모형을 선물하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길”

총무원장 자승스님, 박원순 서울시장에 범종 선물하며 당부

QR코드로 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본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원순 후보와 지지자의 발언, 불교계의 제언 등을 담은 특별기획을 진행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해보세요.



“고향이고 지친 시민에게 친구되고 위로되는 서울시”
박원순 야권단일 서울시장 후보



문화계 애환 기록... 도심사랑 범종회
[선대본부장에게 묻는다]
이민영 상임선대본부장



“변화 거둔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시민의 열망”
[‘이 사람’이 왜 한디]
오봉수 서울시의회 의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복지는 시작이 아니라 실천”
[후보에게 바란다]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영리와 문화 공유하는 서울의도록 해안가에서...”
[후보에게 바란다]
서울 불은사 주지 진화스님



“영득속재 새겨놓은 독재 독했다”
후보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통문화정책’



서울시장에 바란다 (上)
[특별기고]
현조스님·재안스님·지승동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7시1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민들의 정서가 잘 전달된 선거인 것 같다”며 “축하한다”고 축하인사를 건넸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서울시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다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상대후보를 지지한 시민까지도 모두 아울러 희망과 행복을 주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계사를 참배한 뒤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박원순 시장은 “총무원장 스님 말씀대로, 선거 과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지지한 분들의 시장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박 시장에 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깨어있으라는 뜻에서 범종 모형을, 함께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는 팔만대장경 조성 천년을 기념해 대장경 경판을 선물했다. 이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떡을 선물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박 시장은 총무원장 자승

님의 안내에 따라 범종을 쳐본 뒤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맑다”면서 “스님의 가르침대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시장은 환담 후 기념촬영을 마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향성무진실로 자리를 옮겨 사찰음식으로 아침공양을 함께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과 불광사 회주 지흥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금전사 주지 법안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스님,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알림 제1회 연재물 기획안 공모 당선작 발표

본지가 독자와 불자들의 아이디어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불교신문 연재물 기획안 공모’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최우수 기획상은 1명을 시상할 예정이었지만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두 분에게 트리거로 결정했습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최우수 기획상 (2명) 상금 50만원+총무원장 스님 선물 (순금 핸드폰 고리1개) 김민석 / 140주 속의 부처님 말씀 최은령 / 인드라N	■ 우수 기획상 (3명) 10만원권 상품권 또는 소장용 목판 <반야심경> 12만원 상당 원영스님 김예진 동국대부속여고
--	---

■참가상 (10명)
〈부처님 생애〉1권
김재철 김희정 이병국 이재섭 이태곤 장경일 정대성 정재학 정훈교 최원형

〈이상 가나다순〉

*각 수상자는 개별 통지 합니다.
*각 수상작에 대한 본지 지면 반영 여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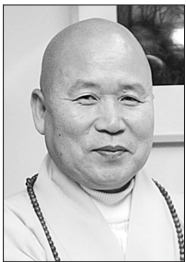
불교신문사

서울시장에 바란다 (下)

종교화합 도모하는 시정 펼쳐길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소감에서 “1995년 시민의 손으로 서울시장을 직접 뽑은 이래 26년만에 드디어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완성했다.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을 실현하기에도 벅찬 시간일 것이다. 박 시장은 청담 대종사로부터 수계(受戒)를 받았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불교인권상과 만해대상을 받고 불교의 사회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시장에 거는 기대와 바람은 각 분야에 걸쳐 많을 것이다.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픕니다. 무명(無明)으로부터 애착(愛着)이 생겨서 내 병이 난 것입니다. 또 일체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일 일체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는 말이



선목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마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펼치는 보살의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 봉사하고,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새로운 공직자상을 세워야 한다. 훼손되어 가는 민족전통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진흥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린다. 특히 종단에서 펼치고 있는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 실천에 동참해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교중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에 겪었던 아픔을 모두 잊어버리고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종교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상생-원융의 시장이 되어 달라

지난 10월26일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서울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살림과 복지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과 함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다. 서울시장 당선자의 기쁨과 함께 서울 시정(市政)을 원만하게 수행해야만 한다. 이번 선거에서 노출된 세대간 지역간 갈등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 앞에 놓여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발생한 근본 원인을 심도있게 살펴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는 기본적으로 불교문화의 토대 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문화는 종교문화 이전에 우리의 삶과 역사가 녹아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임을 잊어서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에서는 불교문화의 물이해로 잘



종민스님
서울 약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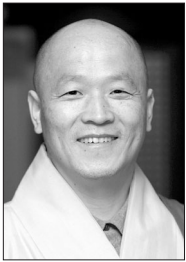
못된 태도를 보여온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장은 600년 고도(古都)의 수장으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자리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함께 서울을 600년 고도답게 하는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불교는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세대와 지역간의 갈등을 서울시정(市政)의 공정함과 상생(相生)의 마인드로 풀어 가기 바란다. 불교 또한 소통의 한 축을 맡을 것이다. 모조록 서울시장의 역할을 공동체의 틀에서 고민하기 바라며, 이해의 도량을 갖춘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원융(圓融)의 시정(市政)을 부탁드린다. 내내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소통-화합의 시장을 기대한다

지난 10월26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서울 시장이 선출됐다. 서울시장은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다. 박원순 시장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며 노인복지시설의 기관장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동들의 무상급식 실시방법을 두고 이뤄진 갈등과 대립이 서울시장의 교제로 귀결되었으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새로운 서울시장은 정치시장 아닌 생활시장이었기를 바란다.

둘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 복지사업에도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청원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고질적인 재정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부족한 사업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위탁운영 체계를 변화시켜 고용승계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운영 법인을 너무 쉽게 교체하려는 상황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선거기간 진행했던 경청투어를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다. 특히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면 서울시의 복지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2년 9개월의 남은 임기를 슬기롭게 보내고 훌륭한 시장이라는 칭찬을 듣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제1회 대승불교세미나 “율장정신의 현실적 진작과 종단적 적용”

종단에서는 자비를 구현하고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위하여 대승불교의 정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승불교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율장정신의 현실적 진작과 종단적 적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_ 2011년 11월 18일(金)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사 회 _ 1부 박병기 교수, 2부 주경스님
- 주제 및 발표

1부 _ 계율과 생명윤리
1. 불살생계와 채식운동 (발표 : 적 연 스님) 2. 불살생계와 의료윤리 (발표 : 허남걸 교수) 3. 생명공학과 불교윤리 (발표 : 우희종 교수)

2부 _ 율장과 종헌종법
1. 율장과 승려법 (발표 : 자현 스님) 2. 징계갈마와 호계원법 (발표 : 덕문 스님) 3. 갈마제도와 중앙종회법 (발표 : 원록 스님)

불기2555(201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